

모두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조우진*

교육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떠한 사회문제도 교육을 배제하고 그 해결책을 논하기 또한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의 기획은 어쩌면 이러한 교육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적 성격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국제이해교육학회의 前 회장으로 이 책의 구성을 주도한 강순원 교수는 머리말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물론 국제이해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절대로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폭력적인 사회를 바꿀 수 없다. 그래도 국제이해교육을 통해서라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략)..... 그래서 글로벌시민성, 평화, 인권, 지속가능성, 문화적 다양성 등, 다섯 기둥을 축으로 삼아 글로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을 기를 것을 제안하고자 필자들이 모였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그런데 이렇게 모인 필자 16명의 글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제기한 각각의 주제들에 대한 성찰과 제안에 담긴 교육 철학적 의미를 발견하는 동시에, 한국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며 이러한 주제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세계문제에 대답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교육문제들이며, 결국 교육의 도구적 목적을 지나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함께 고민하도록 한다.

제1부는 오늘날 국제이해교육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교육, 평화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이해교육 그리고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배경 및 역사를 중심으로 그러한 개념과 평화교육, 인권교육, 민주주의교육 등의 개념이 어떻게 개념적 관계도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오랫동안 이 분야를 다루어 온 교육학자들의 설명을 통해 독자들은 나름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흥미로웠던 점은 과거 평화교육이 우리 교육학계에 소개될 때만 해도, 유네스코 방식의 평화교육을 주로 개인의 지적·도덕적 측면에 호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판이론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 평화교

1) 이 책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서평을 쓰며 최근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육 방식은 사회구조적 모순과 갈등 해결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구분 하곤 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방식의 평화교육을 국제이해교육이라 부르며 여전히 이러한 틀 안에서 평화교육을 접근하는 연구자들을 만나곤 했다. 반면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의 구분 보다 오히려 두 가지 접근방식의 변증법적 통합이 더욱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유네스코 설립 초기부터 국제이해교육 활동을 주도한 지식인들이나 비판이론을 이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도외시켰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리는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채택하여 이 책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 1974년도 권고안²⁾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비슷한 개념들에 대한 분석철학적 연구도 더 필요하겠지만, 이 책은 제시된 개념들의 상호관련성과 중첩성 그리고 복잡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제2부와 제3부는 이 책이 국제이해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선정하고 있는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실 문화다양성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왜 문화다양성이 중요하고 특히 국제이해교육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

2)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이 권고(recommendation)는 국제이해교육의 경전처럼 인용되곤 한다.

의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계에 급속도로 확산된 ‘다문화 교육’을 다시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듯하다. 이런 점에서 특히 문화 간 다양성(diversity among cultures)과 함께 하나의 문화가 지닌 다양성(diversity within a culture)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안은 우리 사회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화다양성 측면에서만 많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제이해교육에서 생물다양성이나 언어다양성 등이 문화다양성과 연계하며 교육적 의미를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을 밝혀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은 최근 유네스코를 비롯한 유엔체제가 교육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발전 문제에서 그야말로 한 가운데 놓인 주제(a central concern)라 할 수 있다. 흔히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개발협력을 이야기하며 해외봉사 활동을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는 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무엇이 지속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말하는가?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이런 질문을 접하며 다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우리는 다시 지구사회의 빈곤의 불평등이 조성되었는가? 해외봉사가 아니라 해외전학이나 해외체험이라 해야하지 않는가?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실천의지가 과연 있는가? 인류학자, 교육학자, 과학교육자,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가

각각의 관점에서 발전의 문제를 돌이켜보며 지속가능성을 참여와 실천의 문제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제4부는 목차에 나와 있듯이 국제이해교육의 현장화이다.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어떻게 교수와 학습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를 교육 전문가들이 예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196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해온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소개, 학교에서 논쟁이나 토론 방식 그리고 영화를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글로벌 이슈를 활용한 대학에서의 국제이해교육, 그리고 우리 교육에서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이 필요한 지리 문해력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실천하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이해교육의 현장화를 위한 교육 전문가들의 예시는 분명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과 방법이다. 아쉬움은 실천을 향하는 현장화를 위해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목소리가 짧게라도 함께 있었으면 더욱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싶다.

연구자로서 뿐 아니라 활동가로서 책을 쓰고, 읽고, 논하며 좋은 책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런 이유로 늘 공감을 일으키며 마음에 다가오는 책일수록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아쉬움을 남긴 모든 필자들에게 더 큰 고마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제이해교육은 공동선을 위해 인류가 가야만 할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사반세기(四半世紀) 동안 유네스코가 가장 중심에 두고 전개한 교육 운동이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이었다. 아직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

에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제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한국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가야 추구하며 가야 할 또 하나의 교육 운동이 바로 ‘모두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금년 5월 인천에서 열린 ‘2015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역시 그러한 도정의 일부였다고 생각한다.